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읍’

유엔 세계관광기구 주관 기념식서 선정…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군 무주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 한마당' 행사(주관: 무주군 관광협의회)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패'를 무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운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린 무주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환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세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계관광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다운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 무주읍은 △한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정경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삶의 기반이 되는 무주마실길(금강마실길, 금강매패길), 소아나루공원, 자남공원 등의 자연 자원은 물론, 공립 최북미술관과 김환대문학관, 북학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미술 등의 생활·문화자원도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세계 65개국 207개 신청마을 중 총 40여 곳이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역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전북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2021), △전남 신안 퍼플섬(2021), △경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주 세화마을·동백마을(2023), △전남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2023)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지역 최대 체육공간 탄생

진안군은 21일 오후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진안군 최대 규모의 실내 체육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생활체육 공간이다. 지난 2021년 착공해 4년여간 총사업비 132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37.5억 원, 군비 54.5억 원)이 투입됐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계층과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는 굳은 의지와 화합의 상징을 담고 있다. 준공식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센터는 연면적 3,319.16㎡ 규모로 체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VR체



합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와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진안군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있어, 이번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이 도민체전 성공 개최의 핵심 기반이자 군민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사과 본고장 일본 아오모리현 기술교류 추진

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해 사과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선진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행정, 의회, 전곡사과 생산자협회 장수지부 관계자 등 29명이 참여해 장수사과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현지를 찾았다. 방문단은 일본 내 최대 사과 생산지로 꼽히는 아오모리현의 농업시험장, 사과협회, 과수농가 등을 직접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기술 방향 △병해충 방제 및 왜화재배 기술 △유통·경매 시스템 △지방정부의 농가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



해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히로사키 농산물 경매장과 후루사토 센터, 아오모리 사과협회 등을 차례로 찾아 일본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어 이타야 나기 정청을 방문해 장수군의 과수 정책 추진 방향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태권도, 군민 일상과 지역 문화 속에 녹아들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태권도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도록 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성지 구상 방안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무주군 태권도 성지 위상 강화 방안」 5분 발언을 통해 “반딧불

축제와 더불어 무주가 세계에 내놓을 또 하나의 자랑, 태권도 정신이 그 빛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태권도는 한국인의 혼이 담긴 문화이자 세계인이 공유하는 가치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가 사랑하는 태권도의 심장부 무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가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태권도 도시를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기존 축제와 태권도를 결합한 시범공연, 참여형 이벤트,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와 문화콘텐츠의 분절 극복 △무주의 체험형 태권도 관광지화로 관람 중심에서 참여와 경험 중심의 태권도 접목 확대 △군민 누구나 태권도를 체험하도록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태권도원이 있는 지역에서 탈피해 군민 일상과 지역 문화 속에 태권도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태권도의 성지로 나아가도록 군민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마이산 북부 전기차 ‘마이열차’ 주차장 조성해야”

진안군 마이산 북부에서 전기차 ‘마이열차’를 10여년째 운영해 온 구하라 씨가 진안군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구씨는 “손님이 전기차에 탑승하려면 손님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군이 과거 허가해 준 전기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아무런 대안 없이 철회했다”며 “이는 개인영업 문제가 아니라 북부상권과 진안지역경제의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군이 그동안 개인에게 매입해 임시로 제공해 운영되던 주차장에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갯길이나 비공식 공간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이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군청에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사업이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북부 상가 번영회원들도 전기차 주차 공간만 제대로 확보돼도 관광객 유입이 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마이열차는 노약자와 기동객 등을 위한 사실상의 교통수단”이라며 “군이 과거 인정했던 주차장을 복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허가 당시 주차장 등을 고려해 허가가 나왔어야 했는데, 현재로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한국농어촌공 무진장지사 물관리 운영대의원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사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강화와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등 공사의 중점 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무진장지사 물관리 중점 추진 업무는 △급수예보 서비스 개선 △농경지 침수방지 제도 개선 △사전 예방적 시설물관리 강화 △홍수기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실현 △농어촌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7개 과제를 손혁준 수자원관리 부장이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촌 현장의 문제는 지자체와 공사,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른 슬로건 아래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로그램·진안군 백패킹 축제 개최

진안군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2025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 워크 어라운드 생태호수'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로그램의 주최·주관으로 전체적인 행사 기획·운영 및 콘텐츠 구성을 이끌어낸다. 진안군은 주천생태공원, 진안을 가막천 주변 등 장소 제공 및 일부 트레킹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지역 특산물 및 먹거리 시식·판매, 기념품 등을 후원한다.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내 대표 백패킹 축제로 해마다 500~600명의 백패커들이 참여해 아웃도어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진행 요원을 포함해 약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